

# 영화의상 「매트릭스2 - 리로디드」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패션 이미지 연구

김 현 숙

단국대학교 예술조형학부 산업디자인과(패션) 교수

## A Study on Post-modern Fashion Image Expressed in the 「Matrix2 - Reloaded」 Costume

Hyun-Sook Kim

Dept. of Industrial Design(Fashion), Dankook University  
(2003. 9. 8 투고)

###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t-modern fashion image appeared in the costumes of the movie 「Matrix2 - Reloaded」, which is believed to adapt successfully the Postmodernism ideas on screen.

From this study, we can find that the movie costumes express certain formative characteristics considerably affected by the contemporary fashion trends such as Minimalism, Formalism, Futurism, Ethno-eclecticism, Asexualism. These are mostly common tendencies aroused in the complex and pluralistic circumstances of Postmodernism where many diverse values are equally regarded.

Finally, the 5 trends lead to represent the following symbolic meanings with entanglement in multiplex ways, that is Virtual Reality, Mechanic Artificiality, Human Dignity, Mysticism, Multi-Culturism, and Nonsexuality to create a strong unified imagery and style in that Post-modern movie.

Key words: matrix(매트릭스), movie costume(영화의상), fashion trend(패션 경향),  
symbolic meaning(표상 의미), post-modern imagery(포스트모던 이미지)

### I. 서론

복식이란 그 시대 특유의 정신, 사상 내지는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문화적 산물이다. 패션은 가시적으

로 표현된 시대문화의 한 변화 체계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문화로서의 패션은 내재된 사상적 특성과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다.<sup>1)</sup>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시

대라고 말한다. 이미 「매트릭스」영화에서도 등장한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저서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 Simulacres et Simulation>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세계는 모사된 수많은 기호와 이미지들이 실재를 잠식하여 그것을 대체하는 상황<sup>2)</sup>들로 가득 찬 ‘현실의 폐허’<sup>3)</sup>와도 같은 곳이다. 현대 시대에 있어서 패션은 끊임없이 찰라적인 변화를 거듭하면서 새롭게 모사되고 조합된 인공 이미지의 생산을 계속 추구한다는 점에서 후기 산업 자본주의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화풍토에 가장 쉽게 적용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특성을 은막위에 성공적으로 도입했다고 주장하는<sup>4)</sup> 영화 「매트릭스」의 두 번째 작품 「매트릭스2 - 리로디드」의 전반적 복식 스타일을 살펴보고, 그 속에 나타난 현대패션의 조형적 특성과 패션 경향, 그리고 결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패션이미지들의 표상의미를 연구함으로써 영화의상에 표현된 다원주의적이면서 복합적인 현대 패션의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변화된 21세기 시점에 현대패션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여러 경향들을 살펴봄은 물론, 한 영화 예술 안에서 현대패션양식이 어떻게 작용함으로써 표상의미를 발휘하는지 맥락을 짚어보고, 오늘날 대중문화적 또한 대중문화적 환경 속에서 패션이란 패션 자체로 동떨어져 존립하기 보다는 다른 예술 장르와 동시대의 문화적 context내에서 상호교류하는 분명한 포스트모던 ‘퓨전 문화’ 현상<sup>5)</sup>임을 영화의상의 실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세기 현대패션 및 영화의상에 관련된 참고문헌과 논문자료, 「매트릭스」와 「매트릭스2 - 리로디드」에 관련된 여러 문헌 및 인터넷 자료, 그리고 영화비디오, 관련 기사 및 사진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또한 「매트릭스2 - 리로디드」영화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의 공식 상영에 앞서 마케팅 효과를 위해 출시된 패션 브로마이드 형식의 포스터 7종<sup>6)</sup>에 나타난 주요 등장인물 배역 7인의 대표적 의상스타일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 영화 「매트릭스2 - 리로디드」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 작품내용

영화 「매트릭스2 - 리로디드」는 워쇼스키 형제가 감독한 매트릭스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이다. 전체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부작 ‘매트릭스’의 무대는 2199년이다. 21세기 초에 개발된 AI(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 지능)가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기계 해방’을 외친다. 무수한 파괴 전쟁 끝에 궁지에 몰린 인류는 핵구름으로 대기층을 뒤덮어 AI의 에너지원인 태양열을 차단해 기계 작동을 멈추려 하지만, AI는 거꾸로 인간의 육체에서 대체 에너지를 추출해내는 방법을 개발한다. AI는 인간이 태어나는 즉시 ‘고치’에 담아 배양하는 거대한 에너지 공장을 운영한다. 여기서 ‘매트릭스’의 정체가 드러난다. AI는 인간들이 재배되는 현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인간의 뇌세포에 가상현실 프로그램 ‘매트릭스’를 입력하고, 인간들은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매트릭스(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지구촌 풍경) 안에서 살아간다. AI는 매트릭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초능력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에이전트에 걸린 해커들은 제거되고 그 육신은 액화되어 ‘고치’의 영양액으로 재투입된다. 한편 지하 수천 km 깊은 곳에는 에이전트의 눈을 피해 살아남은 인간들의 최후의 도시 ‘시온’이 있다. AI는 시온의 위치를 찾아내 초토화하려고 안달이고, 시온은 비밀전사들을 보내 매트릭스를 파괴하려고 전전긍긍한다.<sup>7)</sup> 이 구도 속에서 영화 ‘매트릭스’는 기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줄 주인공 네오(Neo)가 가상현실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저항군들과 함께 겹겹이 싸인 가상세계의 문을 열고 매트릭스를 만든 소스 프로그램과 대면하여 투쟁을 벌이는 이야기이다. -

### 2. 문화적 배경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탈근대라는 의미를 지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문화예술 경향

을 일컫는다. 이는 모더니즘의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거부하고 주류와 비주류간의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고정된 장르가 붕괴되고 서로 혼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주변 문화로서 도외시 되어왔던 다양한 에스닉(ethnic) 개념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상류 문화와 하위 문화 등을 혼합, 절충시키는 다양한 표현들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영화 「매트릭스2 - 리로디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매트릭스’(Matrix)란 용어는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미디어의 이해>(1964)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sup>8)</sup>로서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1) 자궁. (2) (이 뜻으로부터) 형태를 뜨는 것, 기원, 무언가 그 안에 둘러싸이거나 담기는 토대. (3) 세포 간 물질. (4) 금속이나 다른 광물을 부어 모양을 만드는 주형으로 흙이나 돌 등으로 만들어진다. (5) 기념패를 넣는 금속판의 빈 공간. (6) (수학) 행렬.<sup>9)</sup> 등을 뜻한다. 또한 1984년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이 그의 사이버펩크 소설 <뉴로맨서(Neuromancer)>에서 가상현실을 지칭하기 위해 ‘사이버 스페이스’와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주조해냈다.<sup>10)</sup> 영화에서 매트릭스는 진실을 볼 수 없도록 인간의 눈을 가려온 세계를 말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디지털 프로그램의 가상현실 구조물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인간 개인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어떤 힘의 노예이며, 인간 포로들을 유순하고 무기력하게 통제하기 위해 기계들이 창조해 낸 인공적 현실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들의 집단적 환영이 바로 매트릭스이다.<sup>11)</sup> 영화 속에서 매트릭스는 위의 사전적 의미의 뜻을 거의 다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매트릭스 영화는 매우 은유적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첨단 기술 세상에서 현실과 모사(시뮬레이션)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사라진 상황을 다루는 영화이다.<sup>12)</sup> 우리는 실제로 이미 TV, 팩시밀리, 영화,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등으로 현실과 시뮬레이션의 경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심지어 장 보드리야르는 우리

는 실제에 대한 감각과 실제와 모사를 구별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이미 “이미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sup>13)</sup> 여기에서 영화는 오늘날 전체가 하나의 테크놀로지 산업사회로 운용되는 거대한 현대문명세계에서 첨단기술이 제공하는 온갖 시뮬레이션의 산물들, 즉 시뮬라크르<sup>14)</sup> 속에 침잠되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수십억 사람들”의 현실세계를 비유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프로그래밍된 무수한 선입관, 주입받은 지식들,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편견의 격자, 거짓과 환상들에 대한 통렬한 알레고리<sup>15)</sup>를 상징하고 있다.

이 영화는 또한 겹층구조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포스트 모던한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영화 속에서 비판하지 마지않는 포스트 모더니티 환경의 환상적인 첨단 테크놀로지와 특수 시각 모사 이미지를 그대로 우리 앞에 내보이며 그 매력에 폭 빠져들게 만든다. 테크놀로지를 빌어 테크놀로지의 악덕과 폐해를 비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테크놀로지가 조장하는 매혹적인 꿈의 세계, 즉 환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만든다. 꿈의 세계를 파는 영화 「매트릭스2 - 리로디드」는 이미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것이 바로 또한 겹의 새로운 ‘시뮬라시옹’의 발현이며, 또 하나의 포스트모던 상황의 패러독스임을 예증하고 있는 것이다.

매트릭스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메시아의 부활이라는 기독교적 신앙과, 꿈과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호집몽’의 장자 철학, ‘비움의 정신’을 추구하는 선불교 및 동양 사상의 신비주의, ‘신탁’이라는 컨셉을 내포한 그리스 신화, 묵시록의 디스토피아(Dystopia : 반유토피아)적 분위기의 세기말 염세주의 등 시대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 동서양의 관념과 사상을 절충한 복합문화적 코드를 내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 오시이 마모루의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1995), 그 밖의 SF공상과학소설과 SF영화 등으로부터 차용한 다양한 시각표현 메시지들과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즈의 마법사’ 등에서 인용한 일련의 상징 언어들, 그리고 홍콩 무술 영화, 사부라이 영화, 서부 활극 등을 혼합한 액션 기법들을

‘AI’, ‘가상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테크놀로지 문화와 한 데 뒤섞여 결합함으로써 만화, 게임, 환상 문학, 무술, 전자컴퓨터 기술 등 장르간 양식의 크로스 오버를 가능케 하는 포스트모던 문화적 퓨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패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매트릭스2 - 리로디드」는 각 배우의 몸통을 중심으로 담으면서 입술 바로 위의 얼굴을 잘라내어 버린 패션 광고 스타일의 포스터 7종을 통해 영화에 대한 강렬한 시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영화 속에 표현된 의상과 선글라스, 헤어스타일은 매우 첨단적이며, 세련되고 강렬하다. 이 영화는 의상과 선글라스, 헤어스타일 뿐 아니라 포스터에 이르기까지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sup>16)</sup> 바로 이 영화와 그 속의 영화 복색이 스타일과 패션이 된 것이다.

### 3. 주요 등장 인물

영화 「매트릭스2 - 리로디드」에서는 7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 1) 네오 (Neo)

낮에는 토마스 앤더슨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밤에는 ‘네오’라는 사이버 ID를 가진 컴퓨터 해커인 인물로서, 기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구세주(The One)’의 역할을 하는 주인공. Neo는 하나를 의미하는 영어 ‘one’의 철자를 바꾼 말이며, 접두어로서 ‘새로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세월을 뜻하는 영겁(‘eon’)으로의 새로운 현실의 안내자<sup>17)</sup>를 상징하기도 함.

#### 2) 모피어스 (Morpheus)

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리스 신화의 꿈의 신 ‘모르페우스’에서 딴 이름을 가진 인물로서, 네브카드네자르(예지몽으로 고통을 겪다가 결국 미쳐버린 고대 바빌로니아 왕의 이름)<sup>18)</sup> 함선의 선장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저항군 지도자. 네오의 스승 격이며 이 영화에서 예수로 상징되는 네오를 이끄는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수행함.

#### 3) 트리니티 (Trinity)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신성 삼위일체 개념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서, 정신적이고 신념으로 가득한 저항군의 일원이며 네오의 동료 전사이자 연인인 인물. 그녀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속박없는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함.<sup>19)</sup>

#### 4) 스미스 요원 (Agent Smith)

가장 흔한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인물은 매트릭스 세계를 창조한 인공 지능이 인간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인간을 매우 혐오하는 인물. 지속적인 복제가 가능함.

#### 5) 트윈스 (The Twins)

신출귀몰한 악당으로 육화한 인공 지능 프로그램. 매트릭스 심장부에 접근할 수 있는 키메이커를 감시하는 인물.

#### 6) 페르세포네 (Persephone)

네오를 유혹하는 ‘팜므 파탈’(femme fatale ; 요부)로서 위험한 여인. 원래 ‘페르세포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을 지배하는 왕인 하데스(Hades)의 아내임.<sup>20)</sup>

#### 7) 니오베 (Niobe)

모피어스의 옛 애인. 그리스 신화에서 테베의 여왕. 네브카드네자르와 같은 함선, 로고스호의 여선장.

## III. 「매트릭스2 - 리로디드」영화의상의 조형적 특징

영화 「매트릭스2 - 리로디드」의 의상디자이너는 킴 바렛(Kym Barrett)이다. 영화 속에서 표현된 그녀의 의상디자인은 매우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영화에 있어서 의상디자인이란 작품 이야기 속의 TPO(Time/Place/Occasion) 및 그 밖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인물을 창조·형상화하며, 전체 작품의 해석을 통해 영화의 주제나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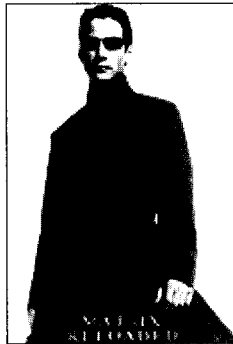
위기를 표현하고, 결국은 예술적이면서도 통일성 있는 작품의 스타일을 창출하는 일이다. 영화 포스터 7종에 나타난 7인의 등장인물들 의상스타일을 살펴보면, 위의 역할이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것은 영화 속 내용인 2199년 '진짜 현실'과 매트릭스 세계의 1999년 '가상현실'을 왕래하는 비현실적인 공간과 상황을 잘 전달하고 있고, 적절하면서도 차별성 있게 시각조형화한 스타일로 인물들 각자의 성격과 역할을 창조하고 있으며, 단순 만화적이면서도 공상적인 분위기로 사이버 테크놀로지 가상세계의 인공성, 기계성, 사물성, 인간소외성 등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고, 더욱이 전체적인 견지에서 볼 때 전반적 의상스타일의 통일성을 훌륭히 달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제 위에서 말한 등장인물 7인의 전반적인 의상스타일이 형태, 실루엣, 색상, 소재 등 조형적 측면에서 어떻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1. 네오

네오의 대표적 스타일은 목이 높은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의 단순하면서도 직선적인 실루엣의 긴 코트와 창백한 화장, 강렬한 검정 선글라스로 표현된다<그림 1>.

검정색 합성 울<sup>21)</sup>로 만든 단순선명한 형태의 긴 외투는 목을 감싸는 높은 깃과 세트인(set-in) 소매가 달린



<그림 1> 네오

넓고 딱딱한 각진 어깨 등으로 인해 매우 경직되어 있으면서도 위엄 있는 권위적 제복(uniform)과도 같은 모습이다. 이것은 마치 목깃이 높은 만다린 칼라(mandarin collar)가 달린 긴 길이의 남성용 중국 전통 복식<그림 2>과도 비슷하고, 또한 몸을 다 가리는 카톨릭 신부의 사제복<그림 3>과도 비슷한 다중적 이미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2> 중국 전통복



<그림 3> 신부 사제복

### 2. 모피어스

그의 스타일은 매우 포멀(formal)하게 갖추어 입은 3pcs. 수트 형태의 길이가 긴 육중한 외투, 짙은 구릿빛 얼굴색(흑인 배우가 역할을 맡음)과 스킨헤드(skin-head), 안경다리가 없는 코걸이 선글라스 등으로 나타나 있다<그림 4>. 가죽 계열의 옷감으로 만든 검정색 외투는 깃이 커다란 밀리터리



<그림 4> 모피어스

유니폼(military uniform)의 오버코트(overcoat)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군복식의 넓고 딱딱해 보이는 어깨와 상체로 인해 매우 당당하고 강건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표면이 엠보싱(embossed) 처리되고 특수 날염<sup>22)</sup>된 광택 소재는 영화 속 미래사회의 전위적 전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 3. 트리니티

그녀의 스타일은 몸에 맞는 바디 컨셔스(body-conscious) 실루엣의 단순한 검정 수트 형태의 재킷과 바지, 검정 가죽 장갑, 창백한 화장과 짧은 머리, 검정 선글라스 등으로 매우 강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그림 5>. 재킷은 목까지 올라온 높은 하이 스탠딩 칼라(high-standing collar)와 기능적인 지퍼 여밈으로 처리되어 있고 브래지어나 속옷 파운데이션에서 볼 수 있는 분할 절개선은 마치 몰딩(molding) 기계로 찍어낸 성형물<sup>23)</sup>과 같은 인공적인 미래세계의 의복 분위기를 내고 있다. 무늬가 전혀 없는 검정 단색의 광택이 강한 PVC(Poly Vinyl Chloride)소재<sup>24)</sup>는 더욱 미래적이며 아방가르드한 인상을 질게 하며, 전체적으로 여성 전사로서의 강하고 중성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림 5> 트리니티

동양의 흰색 가부키 분장 양식을 절충한 전체 메이크업(make-up) 스타일은 복합문화적 하이브리드(hybrid) 변종 모드의 인상을 질게 하고 있다.



<그림 6> 스미스 요원



<그림 7> 트윈스 형제

#### 4. 스미스 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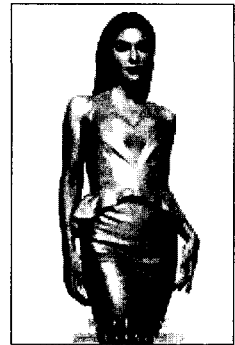
디자이너가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시대의 비밀 첩보원(secret agent)의 이미지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다<sup>25)</sup>는 스미스 요원 스타일은 그대로 남성의 비즈니스 포멀 슈트(business formal suit)와 검정 선글라스로 간결하게 나타나 있다<그림 6>. 흰색 Y셔츠, 검정 넥타이, 싱글 여밈의 검정 양복 슈트는 현대의 거대한 다국적 기업사회에서 대량복제되는 가장 전형적인 남성용 제복의 표상이며, 이것을 통해 무형의 인공지능 감시 프로그램을 인간의 형체(스미스 요원)로 육신화함으로써 전자 프로그램의 육피(human flesh)로의 위장성과 기계적 사물성을 명료하게 상징하고 있다.

#### 5. 트윈스 형제

이들의 스타일은 넥타이, 셔츠, 조끼, 바지, 긴 코트 등 정식으로 격식을 갖추어 입은 포멀 웨어(formal wear) 형태 인데, 어깨가 각지고 전체적으로 매우 딱딱한 직선적 실루엣과 광택 나는 흰색의 인공 소재로 표현되고 있다<그림 7>. 흰색으로 반사되는 테크노 소재와 색상은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흑인 문화의 레게머리(dreadlocks)와

#### 6. 페르세포네

그녀의 스타일은 가슴이 파이고 소매가 없는 단순하고 관능적인 바디 컨셔스(body-conscious) 실루엣의 흰 원피스로서 아무런 액세서리 장식 없이 심플하게 표현된다<그림 8>. 전체적으로 인체선을 따라 피트되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미니멀한 곡선 형태인데, 은회색 기운이 도는 메탈릭(metallic)



<그림 8> 페르세포네

광택 소재의 신비로운 색상과 매끄러운 질감으로 인해 미래적인 테크노 감각을 나타내고 있다.

#### 7. 니오베

그녀의 스타일은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작은 듯하게 몸에 피트되는 간소한 짧은 재킷과 8부 소매, 꼭 끼는 바지 형태로서 엠보싱(embossed) 표면 처리된 광택 나는 자주색 인공 피혁 소재로 표현되고 있다<그림 9>. 전체적으로 몸에 붙는 작고 심플한 실루엣과 광택이 나는 가죽 소재 및 단순 강렬한 자주색상, 그리고 기능적인 지퍼 여밈 등으로 인해

스포티(sporty)하면서도 도전적인 미래 여전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9> 니오베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표 1>

인물 조형성	네오	모피어스	트리니티	스미스 요원	트윈스 형제	페르세포네	니오베
형태 및 실루엣	단순선명한 형태 직선적 실루엣 딱딱하고 경직된 외형 중국 전통복식과 비슷 금욕적인 사제복과 비슷	정형화된 포멀 슈트 딱딱하고 육중한 군복식 코트	단순명료한 형태 바디컨서스 실루엣 물딩성형복 형태	제복화된 포멀 슈트 간결한 구성	정식 포멀 웨어 형태 딱딱하고 각진 직선적 실루엣	단순간결한 곡선 형태 바디컨서스 실루엣	작고 단순한 형태와 실루엣
색상	검정 단색	검정	검정 단색	검정과 흰색	흰색 단색	은회색 단색	자주
소재	울(Wool) 무지	광택 소재 엠보싱된 가죽	광택 강한 PVC 무지	울(Wool) 무지	광택있는 테크노 인공 소재, 무지	테크노 광택 소재 무지	광택 소재 엠보싱 인공 피혁
기타	창백한 화장 검정 선글라스 비장식성	코걸이 검정 선글라스 흑인문화의 구릿빛 메이크업과 스킨헤드 스타일	창백한 화장 검정 선글라스 짧은 헤어 스타일 비장식성	검정 선글라스	검정 선글라스 래게머리 스타일 가부키 메이크업 스타일	비장식성	검정 선글라스 흑인문화적 헤어스타일 비장식성

#### IV. 영화의상에 나타난 패션 경향 및 표상이미지

앞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매트릭스2 - 리로디드」

영화의상 스타일의 조형적 특징은 다면적 해석이 가능한 다중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5가지 패션 경향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각각은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며 결과적으로 통일된 전체 영화 의상스타일을 만들어 내는 데에 협조하고 있다.

위의 조형적 특징에서 추출 가능한 5가지 패션 경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미니멀리즘

「매트릭스2 - 리로디드」영화의상에서는 형태의 단순성, 색상의 단일성, 소재의 최소화 및 단면성, 장식과 디테일의 배제 또는 단순화 등이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미니멀리즘<sup>26)</sup> 패션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명료한 선으로 재단된 외형, 직선적인 실루엣, 단순한 구조 등의 의복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성 인물들 <그림 5, 8, 9>이 착용한 곡선적인 바디 컨서스(body-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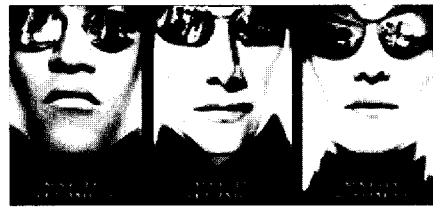
패션 경향	네오	모피 어스	트리 니티	스미스 요원	트윈스 형제	페르세 포네	니오베
미니멀 리즘	●		●	●		●	●
형식 주의	●	●	●	●	●		
미래 지향 주의		●	●		●	●	●
민속 절충 주의	●	●			●		●
에이 섹슈얼 리즘	●		●		●		●

conscious) 스타일 역시 인체선을 강조하면서도 간결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몸에 붙는 한 꺼풀” 의복으로서의 밀착형 패션은 양감과 부피감의 축소를 가져옴으로써 복장 아이템(item) 구성을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 더욱 미니멀한 인상을 가져온다고 하겠다.

색상 면에서는 대체로 어둡고 명암대비가 뚜렷하고, 흑백 색상 위주로 한정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단일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검정<그림 1, 4, 5, 6>, 흰색<그림 7, 8>, 자주<그림 9> 등 명료한 단색 색상의 의상과 장백한 화장, 검정 선글라스 등의 색조대비를 통해 분명하게 표현된다. 다채로움을 배제시킨 검정과 흰색은 미니멀 패션에 있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색채<sup>27)</sup>로서 단순함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의상스타일에서 검정색은 극도로 절제된 엄격함과 극적인 분위기를, 흰색은 신비스러운 영적인 기운을, 자주색은 밖으로는 냉담하나 내면적인 열정을 나타냄으로써 미니멀리즘 정서에 부합되고 있다.

소재 면에서는 광택이 있는 것<그림 5, 7, 8, 9>과 없는 것<그림 1, 6> 두 종류로 간결하게 나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면적인 재질감과 반사되는 매끄러운 단면성, 무늬가 없는 무지(solid) 효과 등으로 단순명료하며 차갑고 견고한 미니멀리즘 성향을 제시하고 있다.

장식 요소의 측면에서는 최대한 장식과 디테일을 절제하고 패션 액세서리도 매우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착용 방식이 돋보이는 다리가 제거된 코걸이 선글라스 등, 강한 인상을 주는 검정 선글라스만을 주된 장식적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그림 10>.



<그림 10> 「매트릭스2 - 리로디드」의 선글라스

또한 겉옷에서 주머니를 생략하거나, 단추가 아닌 지퍼를 사용하거나<그림 5, 9>, 안단 안에 단추를 넣음으로써 겉으로는 단추가 보이지 않는 형식<그림 7>의 깔끔한 축소형 디자인들이 착용 방법의 기능성과 단순성 및 디테일의 비장식성 등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패션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매트릭스2 - 리로디드」영화의상은 뚜렷하게 미니멀리즘 패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단순 강렬한 흑백 단색조의 만화적 이미지를 창출하며 그것을 통해 영화 속 사이버 공간의 비현실적 가상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매우 중성적이고 인공적인 이미지로 신체를 물성화시키고 의상에 있어서도 차가운 기계적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포스트모던 기술 문명사회에서의 인간소외성을 표방하고 있다. 다원화, 다양화 되어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지배적 경향 가운데 20세기말 재등장한 미니멀리즘적 표현은 점점 기계화 되어가는 포스트모던 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현상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sup>28)</sup> 21세기를 맞이한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 2. 형식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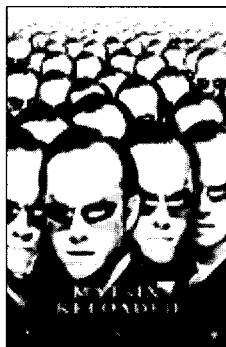
「매트릭스2 - 리로디드」영화의상스타일은 매우



형식주의적인 과시성을 띄고 있다. 형식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내용, 실질보다 형식, 격식을 추구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작품의 다른 특성들보다도 형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장에서 내용보다는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나타낸다.<sup>29)</sup> 이것은 단일한 형태, 평면적 명확성과 단순성 등 순수조형요소의 본질적 형식성을 탐구하는<sup>30)</sup> 미니멀리즘에도 내재된 경향으로 위의 영화의상스타일에서는 순수 미니멀리즘 바탕 위에 호트러지지 않는 외형적 가시성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적 기치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것은 목을 감싸는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 넓고 딱딱한 각진 어깨, 밀리터리 스타일(military style), 단순확일화된 비즈니스 포멀 웨어인 3pcs. 테일러드 수트 등, 형태 면에서 매우 제복화된 형식주의적 정형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제복(uniform)적 성격은 카톨릭 신부의 사제복과도 비슷한 <그림 1>의 외투, 군복 외투의 형태를 확장한 <그림 4>의 밀리터리룩 오버코트, 넥타이와 함께 남성의 포멀 정장 수트를 갖추어 입은 <그림 4, 6, 7>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5, 9>에서 보는 여성 인물들의 스타일도 경직된 이미지로 형식주의적 면모를 띄고 있다.

이와 같은 경직된 형식주의적 정형성은 위용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는데, 카톨릭 사제복을 닮은 <그림 1>의 복장은 그대로 종교적 위엄성과 신비를 암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 영화에서 자주 차용되는 남성 포멀 수트 스타일은 복식 표현의 트로피즘(trophysm)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남성 수트는 직립된 두 다리와 몸통, 곧은 두 팔, 즉 실제 인체의 사지(四肢)의 구조를 본따서 만든 매우 형식주의적인 복장 형태인데, 오늘날 거대한 후기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대량생산되는 획일적 남성용 제복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림 11>을 통해 영화 속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또한



<그림 11> 대량 복제된 남성 수트

장식적 요소로서 넥타이와 근육을 암시하는 어깨 패드는 남근 또는 남성의 정력을 신비화한 암시적 표현<sup>31)</sup>으로 남성의 힘과 강인함을 상징한다. 이로써 남성 정장 수트는 정형화된 제복의 형식주의를 통해 남성적 강건성과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위의 영화의상스타일은 색상과 소재의 측면에서도 형식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테크노 인공 소재에서 오는 뻣뻣한 드레이프(drape) 성질, 무탄력성, 편평하고 견고한 표면효과 그리고 전혀 자유롭지 않은 비자연적 엄격한 무채색상 등으로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또한 눈에 띄게 강조되는 패션 소품인 검정 선글라스도 감정 상태를 은폐하는 부동의 형식성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겠다<그림 10>.

이와 같이 「매트릭스2 - 리로디드」영화의상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획일적인 이미지로 인위적으로 딱딱하고 엄격하게 조성된 형식주의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강인한 힘과 권위와 엄숙한 존엄성을 상징하는데, 영화 속에서 슈퍼맨, 배트맨 등 만화의 강철 주인공 같은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영웅상, 또는 신념이 굳세고 권위 있는 전사적 이미지, 또는 위엄 있고 초인적인 구원자(savior)의 이미지 등을 표상하고 있다.

### 3. 미래지향주의

「매트릭스2 - 리로디드」영화의상스타일은 매우 미래지향적 패션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위에서 보이는 직선적 또는 단순 곡선적 실루엣<그림 5, 8, 9>은 과학과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인체공학적인 기능성을 추구한 단순 기하학적 형태<sup>32)</sup>로 파악될 수 있다. <그림 9>는 1960년대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règes)의 공상과학적 ‘스페이스룩(Space Age Look)<그림 12>과 비슷한 이미지로서 미래지향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그림 5> 또한 몰딩(molding)된 성형의복과도 같은 형상으로 첨단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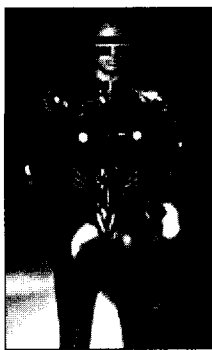
<그림 12> 스페이스룩

과 맞물린 미래지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색상 면에서도 반사되면서 미묘한 공포 분위기를 일으키는 검정 색상과 빛과 우주를 상징하는 신비롭고 영적인 흰색을 위주로 사용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감각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흰색은 약간의 은빛 메탈릭(metallic) 기운이 비치는 뉴에이지 칼라(New Age Color)<sup>33)</sup>로서 빛의 반사에 따라 톤이 미묘하게 달라 보이는 불분명한 흰색으로 파악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 세계를 시각화한, 컴퓨터 모니터 바탕화면의 밝은 미지정색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렇듯 색상 또한 디지털 기술문화의 새로운 미래성을 예시하고 있다.

소재 면에서는 광택 소재, PVC, 표면 가공된 인조 피혁, 기타 코팅 소재 등 하이테크 감각의 첨단 테크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공업재료적 인공성과 과학 기술적 미래성, 나아가 전위적 아방가르드성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특히 <그림 5>는 가상적인 신체 표현으로서의 사이보그(cyborg) 이미지인 사이버펑크 룩(Cyber Punk Look)<그림 13>이 좀 더 미니멀하게 정제된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강렬하게 빛을 반사하는 하이테크 광택 소재의 특성 때문에 더욱 기계적이고 첨단적인 미래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광택 소재는 알 수 없는 미래의 비현실적 가상세계에 대한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매트릭스2 - 리로디드」의 가상스타일은 형태, 색상, 소재 면에서 인공적이고 가상적인 이미지로 미래주의적 경향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영화 속에서 인공적 미와 비일상적 이미지, 그리고 이질적인 하이테크 소재를 통해 “낯설게 하기”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인간을 발전시켜 온 매혹적인 기술문화에 대한 경외감과 더불어 소외적 태도를 표방하고 있다. 이로써 테크놀로지 유토피아(utopia)에 대한 열망과 함께 테크놀로지의 기계성으로 매몰되어가는 인간사회를 역설적으로 풍자한



<그림 13>  
사이버펑크 룩

포스트모던풍의 미래주의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미래적 표현은 외형 실루엣의 직설적 유추를 통한 노골적 과잉 표현보다는 소재, 색상, 메이크업 등을 통해 정신 내면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조<sup>34)</sup>되며, 과학의 거부적 이미지가 첨단 하이테크를 통해 나타나는 포스트모던풍의 아방가르드를 표상하고 있다.

#### 4. 민속절충주의

위의 영화의상스타일에서는 복합문화적인 민속절충주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은 중국풍의 만다린 칼라(mandarin collar)와 직선적인 실루엣을 반영한 스타일로서, 중국적인 분위기의 디테일과 서양복식의 감각을 융합시켜 동양적으로 정제된 간결한 현대 패션 미학성을 보여준다. 이는 절제된 단순 간결한 형식미를 통해 첨단과학문명과 물질주의의 번잡함을 버리고 동양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하려는 쯐(Zen : 禪불교) 스타일, 즉 새로운 미니멀오리엔탈리즘<sup>35)</sup>의 면모와도 닮아 있다. 쯐 스타일은 장식성과 화려함을 배제하고 간결함, 동양풍, 흑백 구조의 무색상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순수 정신주의적 개념의 트렌드<sup>36)</sup>이다. <그림 1>의 스타일은 이러한 복식의 상징성을 통해 종교적 감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단일화된 복장미로 중국풍의 감각과 동양 사상의 신비로움, 서양 종교복식의 수도자적 경건함을 함께 섞어 동·서양 정신문화의 절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은 흑인들의 레게(reggae) 음악 문화에서 파생된 라스타파리안(rasta-farians)<sup>37)</sup> 특유의 드레드록(dreadlocks : 전체를 가다가닥 땅아 준 흑인들의 머리형<그림 14>) 스타일을 입술은 붉게 남기고 전체를 하얗게 칠하는 일본의 가부키(일본의 전통극) 양식의 메이크업과 함께 결합함으로써 원시적 주술성과 동양의 신비감을 하이테크 이미지로 보여주는 기묘한 이국취향적 하이브리드(hybrid)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머리스타일과 메이크업은 다시 테크노 광택 소재의 서양복 수트와 코디네이트 되면서 흑인, 동양, 서양 등의 다원주의적 문화의 절충적 혼합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것은 민속적인 에스닉(ethnic)과 미래적인 테크노(techno) 감각이 합

쳐진 에스노(ethno)<sup>38)</sup>적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그림 4>는 특수피혁소재의 매우 긴 코트 형식을 통해 아메리칸 흑인 문화 특유의 위풍당당한 댄디즘(dandism)<그림 15>을 드러내고 있고, <그림 9>도 흑인 특유의 곱슬머리를 스타일링한 독특한 흑인 문화적 헤어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 드레드록



<그림 15> 흑인 문화의 댄디즘

이와 같이 다인종 캐스팅인 「매트릭스2 - 리로디드」영화는 의상스타일을 통해 문명간의 관용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민족적 복합문화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타문화에 대한 동경 또는 신비감에서 시작되어 차이성을 이해하고 민속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 혼합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민속절충주의 양상은 다원주의적 문화의 해체와 융합 또는 절충에 의해 퓨전화된 스타일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sup>39)</sup> 21세기에 도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경향으로 부각되고 있다.

### 5. 에이섹슈얼리즘

「매트릭스2 - 리로디드」영화의상스타일은 또한 성의 감정이 뚜렷하지 않은 무성주의적 성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은 카톨릭 성직자의 복식에서 볼 수 있는 섹스리스룩(Sexless Look) 경향을 보여주는데, 여성성 또는 남성성이란 이분법적 성의 특질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중성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육체를 은폐시키고 디테일이 최소화되며 다크톤의 무채색상을 사용한 금욕적인 종교 복식의 분위기를 통해 정신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성적인 욕망이 절제된 자기초월적 성자의 모습을 표상한다.

또한 <그림 5>는 짧은 머리, 피혁갑각의 광택 재킷, 바지, 검정 부츠 등의 남성적 강인함을 강조하는 매니쉬(mannish)한 감각을 통해 본래 여성이 가지고 유약함을 상쇄시킴으로써 무성적인 에이섹슈얼(asexual)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정서의 개입이 불가능한 매우 무감성적이고 기계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그림 9> 역시 스포티한 짧은 재킷과 바지 착용을 통해 성의 개념이 애매한 팜므 앙팡(Femme Enfant : 아이 같은 여성)<sup>40)</sup> 성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간결성, 실용성 등의 유니섹스(uni-sex)적 요소가 가미된 중성적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의 영화의상스타일은 에로티시즘(Eroticism)을 강조하지 않은 중성적 패션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여성/남성이라는 성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양성(양성)의 성적 코드를 배제시킨 에이섹슈얼(asexual)<sup>41)</sup>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영화 속에서는 육체를 초월한 인간 정신성의 도덕적 완성을 표상하고 있다. 무성적 에이섹슈얼 경향은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하나의 개체 안에 공존하며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본질을 이룬다는 듀얼리즘(Dualism)<sup>42)</sup> 개념에서 출발하며, 남녀 성 구분이 아닌 '인간'이라는 통합적 이미지로서 '제 3의 성'을 추구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새로운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 V. 결 론

「매트릭스2 - 리로디드」영화의상에 표현된 미니멀리즘, 형식주의, 미래지향주의, 민속절충주의, 에이섹슈얼리즘 등의 패션 경향들은 산업화된 물질문명의 영향으로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연결 고리 속에서 재등장하거나 새로이 형성된 현대 패션의 대표적 양상들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영화 속

에서 여러 표상의미들을 발휘하며 포스트모던한 작품 이미지를 창출해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 패션 경향들이 영화 작품 속에서 발휘하는 표상이미지들은 다음과 같다.

1. <미니멀리즘>은 단순 선명한 인상의 만화적 이미지로 비현실세계의 '가상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기능적이고 차가운 기계적 감성으로 '인공성'을 표상하며, 인체를 물성화시킴으로써 정서가 배제된 '중성성'을 보여준다.

2. <형식주의>는 인위적으로 엄격하게 조성되어 제복화된 정형적 이미지를 통해 인간을 소외시키는 기계적 '인공성'과 더불어 동시에 외형을 통해 내면의지를 과시하는 엄숙한 '위엄성'을 표상한다.

3. <미래지향주의>는 첨단과학기술의 인공적인 형태미, 이질적 하이테크 소재와 신비로운 색상 등의 비현실적, 비일상적 이미지 등으로 낯설지만 경이로운 미래세계의 '가상성', '인공성', '신비주의' 등을 표상한다.

4. <민속절충주의>는 타민족에 대한 이국 취향을 절충하는 복합문화적 이미지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신비주의'와 함께 다양한 '다문화성'을 표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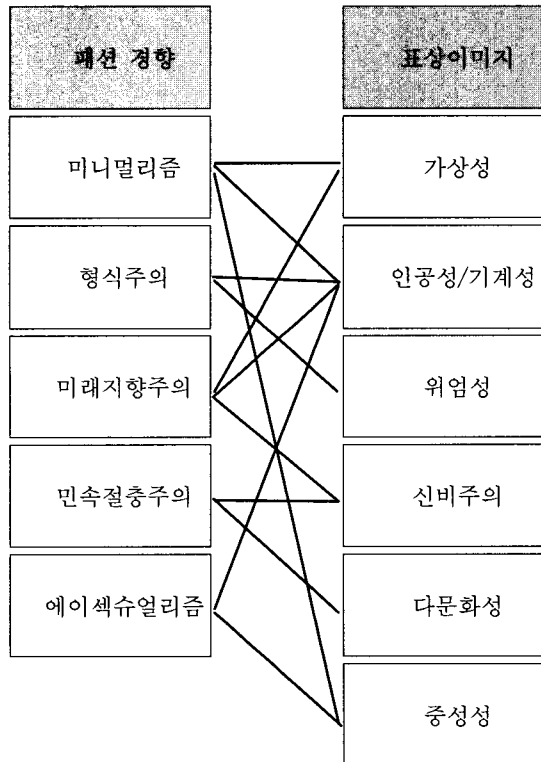
5. <에이섹슈얼리즘>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에이섹슈얼 이미지를 통해 무감성적이고 비자연적인 '인공성'과 성감이 배제된 '중성성'을 동시에 표상한다.

「매트릭스2 - 리로디드」영화의상에 표현된 패션 경향 및 표상이미지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결국, 「매트릭스2 - 리로디드」영화의상은 위의 5가지 현대 패션 경향을 유입함으로써 가상성, 인공성, 위엄성, 신비주의, 다문화성, 중성성의 상징의미를 통해 다원주의적이면서도 복합적인 포스트모던 이미지를 표상하고 있다.

### 참고문헌

<표 3>



- 1) 이연희 외 3인 (2002). 패션문화. 서울: 예학사. p. 3.
- 2) 슬라보예 지젝 외 저, 이운경 역 (2003). 매트릭스로 철학하기. 서울: 한문화. p. 263.
- 3) 장 보드리야르 저, 하태환 역 (2001). 시뮬라시옹. 서울: 민음사. p. 13.
- 4) 글렌 에페스 편저, 이수영·민병직 역 (2003).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다. 서울: 굿모닝미디어. p. 99.
- 5) 김후란, 은영자 (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11권 제2호. p. 296.
- 6) 조선일보, 2003년 3월 27일.
- 7) 주간조선, 2003년 6월 16일.
- 8) 조선일보, 2003년 6월 19일.
- 9) 글렌 에페스 편저, 이수영·민병직 역 (2003). 앞의 책. p. 23.
- 10) 앞의 책. p. 121.
- 11) 앞의 책. p. 30.
- 12) 슬라보예 지젝 외 저, 이운경 역 (2003). 앞의 책. p. 262.
- 13) 장 보드리야르 저, 하태환 역 (2001). 앞의 책. p. 27.
- 14) 앞의 책. pp. 9~10.
- 15) 이정우 (2001). 기술과 운명. 서울: 한길사. p. 182.
- 16) 조선일보, 2003년 6월 12일.
- 17) 글렌 에페스 편저, 이수영·민병직 역 (2003). 앞의 책. p. 107.
- 18) 앞의 책. p. 108.

- 19) 앞의 책. p. 19.
- 20) 이윤기 (2000).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서울: 웅진닷컴. p. 144
- 21) 자료출처 <http://whatisthematrix.warnerbros.com>
- 22) 자료출처 <http://whatisthematrix.warnerbros.com>
- 23) 박길순 (2001). *재미있는 패션의 세계*. 충남대학교 출판부. p. 96.
- 24) 자료출처 <http://whatisthematrix.warnerbros.com>
- 25) 자료출처 <http://whatisthematrix.warnerbros.com>
- 26) 최해주, 정영선 (2001).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51권 7호. p. 101.
- 27) 이연희 외 3인 (2002). 앞의 책. p. 160.
- 28) 앞의 책. p. 169.
- 29) 서승미, 양숙희 (2003). 형식주의 예술의상의 미적 가치. *복식문화연구*, 제11권 제1호. p. 119.
- 30) 콰테오도르 (2001). *디자인과 문화*. 서울: 서우. pp. 158~161.
- 31) 이민선 (2001).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79~82
- 32) Eun-Kyong Park, Min-Ja Kim (2001). Technology Images in the 20th Century Fash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vol.1. p. 168.
- 33) 정홍숙 (1999).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408.
- 34) 엄소희, 김문숙 (2000). *현대 복식의 패러다임*. 서울: 경춘사. p. 127.
- 35) 이연희 외 3인 (2002). 앞의 책. p. 79.
- 36) 조영아, 유혜영 (2001). 20세기 동양모드의 변화 연구. *복식*, 51권 5호. p. 25.
- 37)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7). *복식 문화*. 서울: 교문사. p. 290.
- 38) 정홍숙, 정삼호, 홍병숙 (1999). *현대인과 의상*. 서울: 교문사. p. 125.
- 39) 김후란, 은영자 (2003). 앞의 글. p. 120.
- 40) 채금석 (2002). *현대복식 미학*. 서울: 경춘사. p. 352.
- 41) 엄소희, 김문숙 (2000). 앞의 책. p. 193.
- 42)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7). 앞의 책. p. 257.